

충남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 흥 택

충남연구원 전문연구원
lht@cni.re.kr

이 연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여건 분석
3. 정책제언

요약

- 한국은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충 요구가 증대
-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체 기업 중 20.5%(보건·복지·건강, 교육·보육 등)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경영성과의 편차가 큰 상황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사항은 중간관리자 인력의 부족,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구조, 돌봄서비스를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미시적 성과주의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가중 등 다양한 것으로 분석됨
-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 개선, 돌봄서비스 수가 동일적용, 종합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제안함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 등이 요구되는 상황
 - 2022년 현재,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장-복지 선순환의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를 강조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 및 자생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안과제 해결 시급
 -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위해서는 당면 과제 및 정책수요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파악 필요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생력 강화에 있어 현재의 상황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종합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범위는 사회보장기본법, 일자리창출 관련 개별법상 규정한 광의의 범위의 정의로 정하되, 자료입수 가능성 및 사회적경제 현황에 고려하여, 돌봄(보건, 사회복지, 간병가사지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

02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여건 분석

1.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¹⁾

1) 재무 및 고용 현황

- 도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87개로 20.5%를 차지
- 교육·보육 152개(16.7%), 보건·복지·건강 35개(3.8%)으로 구성
 - 요식업 22개(2.4%), 지식서비스업 29개(3.2%), 보건·복지·건강 35개(3.8%) 등은 매우 낮은 비중

〈표 1〉 주 사업분야(2021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기업수	비중
농·축산·어·임·광업	126	13.8
제조업	141	15.5
도·소매, 유통	128	14.1
요식업	22	2.4
문화·예술	102	11.2
교육·보육	152	16.7
보건·복지·건강	35	3.8
청소·환경·재활용	79	8.7
지식서비스업	29	3.2
기타	96	10.5
총계	910	99.9

주: 2021년 7월 기준 1315개소, 이중 충남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표본인 910개를 기준으로 분석

1) 충남연구원(2021)의 '2021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원데이터'를 가공·분석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도 매출액 평균은 전체 2억 3천만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 분야 2억 8천만 원, 교육·보육 분야는 6천 2백만 원 수준
- 사회서비스 분야인 교육·보육업은 2천 만원 이하 44.1%, 보건복지 2천 만원 이하 28.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2021년 매출액(추정치)

(단위 : 백만원, %)

구분		2천 만원 이하	2천1백 ~5천 만원	5천 1백 ~1억원	1억 1백 ~3억원	3억 1백 ~6억원	6억1백 만원 이상	기타	평균	합계
전체		32.7	18.7	11.6	15.2	5.5	6.5	9.8	231	189,566
주 사 업 분 야	농·축산·어·임·광업	32.5	21.4	11.9	16.7	4.0	7.1	6.3	171	20,139
	제조업	24.8	21.3	14.2	18.4	7.8	11.3	2.1	520	71,801
	도·소매, 유통	35.2	15.6	14.8	14.8	4.7	6.3	8.6	180	21,042
	요식업	40.9	18.2	9.1	27.3	—	—	4.5	66	1,392
	문화·예술	47.1	13.7	12.7	12.7	5.9	1.0	6.9	90	8,592
	교육·보육	44.1	23.0	13.2	6.6	3.3	0.7	9.2	62	8,565
	보건·복지·건강	28.6	22.9	5.7	8.6	8.6	14.3	11.4	281	8,700
	청소·환경·재활용	7.6	21.5	5.1	21.5	8.9	16.5	19.0	512	32,734
	지식 서비스업	20.7	17.2	17.2	27.6	10.3	3.4	3.4	149	4,178
	기타	32.3	10.4	6.3	15.6	4.2	5.2	26.0	175	12,424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매출액 전년 대비 변화는 비슷한 수준 ($\pm 1\%$ 이내) 60.5%이며, 주 사업분야별로는 보건·복지·건강 분야는 65.7%, 교육·보육은 60.5%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지식서비스업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 2021년 매출액(추정치) 전년 대비 변화

(단위 : %)

구분		증가 : 5% 이상	비슷한 수준 (±1% 이내)	감소 : 5% 미만	감소 : 5%~20% 미만	감소 : 20%~40% 미만	감소 : 40%~60% 미만	감소 : 60% 이상	기타 : 2021년만 매출발생
전체		11.4	60.5	3.1	10.2	4.8	3.6	2.0	4.3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3.5	61.9	0.8	11.9	7.1	2.4	2.4	—
	제조업	13.5	55.3	6.4	12.1	7.8	0.7	2.1	2.1
	도·소매, 유통	11.7	58.6	5.5	8.6	3.9	3.9	1.6	6.3
	요식업	18.2	50.0	—	4.5	9.1	9.1	4.5	4.5
	문화·예술	8.8	55.9	2.0	9.8	4.9	9.8	3.9	4.9
	교육·보육	15.1	60.5	—	9.2	5.3	2.6	0.7	6.6
	보건·복지·건강	5.7	65.7	8.6	2.9	2.9	8.6	—	5.7
	청소·환경·재활용	10.1	72.2	1.3	10.1	1.3	1.3	2.5	1.3
	지식서비스업	3.4	72.4	10.3	6.9	3.4	—	—	3.4
	기타	6.3	61.5	2.1	14.6	1.0	4.2	2.1	8.3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근로자현황은 전체 평균 6.65명 수준이며, 2명이하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 사업분야별로는 2명 이하에서 교육·보육업 37.6%, 보건·복지·건강 32.4% 순으로 나타남

〈표 4〉 근로자 현황 (2020년 12월 기준)

(단위 : 명)

		2명 이하	3~4명	5~6명	7~10명	11명 이상	평균(명)	합계
전체		37.8	14.7	22.8	13.2	11.5	6.65	5742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4.1	14.6	23.6	13.0	14.6	7.87	968
	제조업	25.9	12.2	27.3	16.5	18.0	7.53	1046
	도·소매, 유통	42.1	10.7	24.0	13.2	9.9	4.84	586
	요식업	47.4	15.8	21.1	5.3	10.5	6.26	119
	문화·예술	37.4	17.2	23.2	14.1	8.1	4.62	457
	교육·보육	37.6	20.6	27.0	9.9	5.0	4.37	616
	보건·복지·건강	32.4	17.6	11.8	14.7	23.5	19.65	668
	청소·환경·재활용	39.5	10.5	17.1	17.1	15.8	7.75	589
	지식서비스업	42.9	28.6	14.3	10.7	3.6	11.93	334
	기타	54.8	9.5	17.9	10.7	7.1	4.27	359

○ 도내사회적경제기업 중 총 유급종사자수 현황은 전체 2,965명이며, 평균 3.3명임. 주 사업분야별로는 2명 이하 교육·보육업 78.3%, 보건·복지·건강 57.1%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 총 유급종사자수(2021년)

(단위 : %, 명)

구분		2명 이하	3~4명	5~6명	7~10명	11명 이상	평균	합계
전체		71.5	10.5	6.8	5.7	5.4	3.3	2,965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80.2	7.9	6.3	4.0	1.6	1.5	189
	제조업	61.7	12.8	7.8	7.1	10.6	4.5	637
	도·소매, 유통	75.0	10.2	7.0	4.7	3.1	1.8	229
	요식업	72.7	9.1	18.2	—	—	1.7	37
	문화·예술	74.5	11.8	4.9	3.9	4.9	1.9	194
	교육·보육	78.3	11.2	7.9	1.3	1.3	1.5	232
	보건·복지·건강	57.1	8.6	—	14.3	20.0	18.2	638
	청소·환경·재활용	58.2	6.3	8.9	13.9	12.7	6.2	486
	지식서비스업	51.7	31.0	3.4	10.3	3.4	4.0	116
	기타	78.1	7.3	5.2	6.3	3.1	2.2	207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자원봉사자 현황은 전체 2,893명임. 주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보육업 397명, 보건·복지·건강 74명순으로 나타남
- 농·축산·어·임·광업 776명, 제조업 409명, 교육·보육 39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원봉사자수는 지식서비스업 7.5명, 농·축산·어·임·광업 6.2명 순으로 나타남

〈표 6〉 2021년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 명)

구분		2명 이하	3~4명	5~6명	7~10명	11명 이상	평균	합계
전체		65.3	7.5	16.6	6.5	4.2	3.2	2,893
주 사업분야	농·축산·어·임·광업	50.8	13.5	15.1	8.7	11.9	6.2	776
	제조업	61.7	5.7	19.1	10.6	2.8	2.9	409
	도·소매, 유통	68.0	3.1	17.2	6.3	5.5	2.9	365
	요식업	72.7	9.1	—	9.1	9.1	3.9	86
	문화·예술	61.8	6.9	20.6	7.8	2.9	2.7	280
	교육·보육	59.2	9.9	21.7	7.2	2.0	2.6	397
	보건·복지·건강	71.4	11.4	14.3	—	2.9	2.1	74
	청소·환경·재활용	78.5	5.1	13.9	1.3	1.3	1.4	113
	지식서비스업	89.7	—	6.9	—	3.4	7.5	218
	기타	77.1	7.3	11.5	3.1	1.0	1.8	175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조합원 현황은 전체 15,696명이며 주 사업분야 별로 조합원이 5~6명일 때 교육·보육 57.2%, 보건·복지·건강 40%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평균 조합원은 보건·복지·건강과 농·축산·어·임·광업에서 각 22.7%로 높게 나타남

〈표 7〉 2021년 조합원 현황

(단위 : %, 명)

구분		2명 이하	3~4명	5~6명	7~10명	11명 이상	평균	합계
전체		8.8	4.8	46.6	17.9	21.9	17.2	15,69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2	4.0	38.1	19.8	34.9	22.7	2,865
	제조업	9.9	7.1	49.6	19.1	14.2	10.5	1,478
	도·소매, 유통	4.7	5.5	46.1	18.8	25.0	13.7	1,750
	요식업	9.1	4.5	22.7	27.3	36.4	15.3	337
	문화·예술	10.8	3.9	45.1	16.7	23.5	15.6	1,596
	교육·보육	4.6	5.3	57.2	19.7	13.2	9.5	1,448
	보건·복지·건강	20.0	—	40.0	22.9	17.1	22.7	794
	청소·환경·재활용	16.5	7.6	31.6	11.4	32.9	16.8	1,327
	지식서비스업	48.3	—	41.4	6.9	3.4	4.3	125
	기타	2.1	3.1	60.4	15.6	18.8	41.4	3,976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임금 근로자 고용형태 중 전체 정규직 비율이 72.6%임

– 주 사업분야 중 교육·보육업 정규직은 73.3%이고 보건·복지·건강분야는 66.8%로 나타남

〈표 8〉 2021년 임금근로자 고용형태

(단위 : %)

구분		정규직	시간제 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근근로 계약직	시간제근로 계약직
전체		72.6	12.8	0.3	0.7	13.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72.5	11.5	0.0	1.5	14.5
	제조업	69.1	14.5	0.3	0.0	16.2
	도·소매, 유통	66.2	17.6	0.0	0.0	16.2
	요식업	70.0	13.3	0.0	8.3	8.3
	문화·예술	76.3	16.7	0.1	0.5	6.4
	교육·보육	73.3	10.6	1.5	1.5	13.1
	보건·복지·건강	66.8	19.2	0.0	0.0	14.0
	청소·환경·재활용	75.3	4.5	0.0	0.0	20.2
	지식서비스업	81.7	10.0	0.0	0.0	8.3
	기타	81.2	9.9	0.0	0.0	8.9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근로자 특성으로는 남성의 경우 청소·환경·재활용 315명으로 가장 높고, 여성의 경우 보건·복지·건강 분야에서 566명으로 가장 높음

〈표 9〉 2021년 근로자 특성(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성		여성	
		평균	전체	평균	전체
전체		2.7	1,212	3.9	1,753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5	80	2.0	109
	제조업	3.3	300	3.7	337
	도·소매, 유통	1.6	94	2.3	135
	요식업	0.4	5	2.7	32
	문화·예술	1.9	91	2.1	103
	교육·보육	0.9	57	2.7	175
	보건·복지·건강	3.4	72	27.0	566
	청소·환경·재활용	6.8	315	3.7	171
	지식서비스업	2.4	55	2.7	61
	기타	4.1	143	1.8	64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연령별 종사자 수는 주 사업 분야별로 교육·보육분야 20~39세 111명, 보건·복지·건강 분야 40~59세 286명으로 가장 많음

〈표 10〉 연령별 종사자수(20~60대 이상)

(단위 : 명)

구분		20~39세		40~59세		60대 이상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1.5	663	3.0	1,361	2.1	941
주 사업분야	농·축산·어·임·광업	0.7	41	1.4	79	1.3	69
	제조업	1.4	129	3.3	300	2.3	208
	도·소매, 유통	0.9	53	1.8	105	1.2	71
	요식업	1.3	16	0.8	9	1.0	12
	문화·예술	2.0	94	1.5	74	0.5	26
	교육·보육	1.7	111	1.7	109	0.2	12
	보건·복지·건강	4.0	84	13.6	286	12.8	268
	청소·환경·재활용	1.3	60	5.1	236	4.1	190
	지식서비스업	1.8	42	1.9	43	1.3	31
	기타	0.9	33	3.4	120	1.5	54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취약계층 총 근로자수는 주 사업분야별로 2명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보육업 68.2%, 보건·복지·건강업 42.9%로 나타남

〈표 11〉 2021년 취약계층 총 근로자수

(단위 : %, 명)

구분		2명 이하	3~4명	5~6명	7~10명	11명 이상	평균	합계
전체		54.5	18.5	12.1	8.1	6.8	4.8	2,184
주 사업분야	농·축산·어·임·광업	58.2	21.8	16.4	1.8	1.8	2.6	141
	제조업	47.3	19.8	9.9	12.1	11.0	5.6	507
	도·소매, 유통	56.9	17.2	15.5	8.6	1.7	3.0	172
	요식업	58.3	16.7	25.0	—	—	2.6	31
	문화·예술	62.5	18.8	8.3	8.3	2.1	2.8	132
	교육·보육	68.2	21.2	7.6	—	3.0	2.2	143
	보건·복지·건강	42.9	4.8	9.5	9.5	33.3	23.4	492
	청소·환경·재활용	37.0	8.7	23.9	19.6	10.9	7.5	343
	지식서비스업	60.9	26.1	—	8.7	4.3	4.0	92
	기타	51.4	22.9	8.6	8.6	8.6	3.7	131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특성 중에서 고령자가 합계 1,18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 사업 분야 별로 교육·보육업에서는 청년이 86명, 보건·복지·건강 분야는 고령자가 310명 순으로 나타남

〈표 12〉 취약계층 근로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저소득가구		고령자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결혼이민자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0.3	134	2.6	1,188	0.6	286	0.8	363	0.4	161	0.1	42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0.1	3	1.7	91	0.3	17	0.3	17	0.2	11	0.0	0
	제조업	0.3	28	2.9	267	1.3	115	0.6	53	0.3	24	0.2	20
	도·소매, 유통	0.1	7	1.6	94	0.3	15	0.5	28	0.4	21	0.1	7
	요식업	0.5	6	1.0	12	0.0	0	1.0	12	0.1	1	0.0	0
	문화·예술	0.0	1	0.8	39	0.2	9	1.1	52	0.3	15	0.2	8
	교육·보육	0.1	6	0.3	18	0.0	0	1.3	86	0.4	28	0.1	5
	보건·복지·건강	2.2	46	14.8	310	3.6	75	1.7	35	1.2	25	0.0	1
	청소·환경·재활용	0.6	27	5.2	240	1.1	49	0.4	17	0.2	9	0.0	1
	지식서비스업	0.1	2	1.6	36	0.2	4	1.5	34	0.7	16	0.0	0
	기타	0.2	8	2.3	81	0.1	2	0.8	29	0.3	11	0.0	0

2) 경영활동 현황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체에선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59.9%로 가장 높음
- 주 사업분야별로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건강 분야 85.7%, 교육·보육 분야 78.9% 순임

〈표 13〉 제품 및 서비스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방법

(단위 : %)

구분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온라인/오프라인 비슷
전체		59.9	24.1	16.0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9.7	36.5	23.8
	제조업	38.3	35.5	26.2
	도·소매, 유통	55.5	25.0	19.5
	요식업	95.5	4.5	-
	문화·예술	65.7	16.7	17.6
	교육·보육	78.9	12.5	8.6
	보건·복지·건강	85.7	8.6	5.7
	청소·환경·재활용	65.8	30.4	3.8
	지식서비스업	34.5	44.8	20.7
	기타	72.9	14.6	12.5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오프라인 중 가장 많이 판매하는 채널은 주 사업 분야 별로 본사매장에서 판매하는 비율이 교육·보육 분야 80.9%, 보건·복지·건강 분야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4〉 오프라인 중 가장 많이 판매하는 채널

(단위 : %)

구분		본사 매장	협력업체 매장 (삽인샵 등)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	박람회, 장터, 각종행사 등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	기타
전체		84.3	13.0	2.5	15.8	34.0	0.1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88.9	19.0	5.6	19.8	19.8	-
	제조업	87.9	17.7	7.1	27.7	27.7	-
	도·소매, 유통	85.9	14.1	3.1	25.0	21.1	-
	요식업	100.0	-	-	18.2	13.6	-
	문화·예술	83.3	11.8	1.0	19.6	33.3	-
	교육·보육	80.9	8.6	-	8.6	46.1	-
	보건·복지·건강	85.7	8.6	-	5.7	31.4	-
	청소·환경·재활용	55.7	11.4	-	3.8	64.6	1.3
	지식서비스업	79.3	13.8	3.4	3.4	58.6	-
	기타	97.9	10.4	-	5.2	33.3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온라인 중 가장 많이 판매하는 채널은 전화주문 요
식업 100%, 보건·복지·건강 97.1%, 교육·보육 8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온라인 중 가장 많이 판매하는 채널

(단위 : %)

구분		전화주문	본사 쇼핑몰	민간쇼핑몰 및 라이브커머스 (네이버, 쿠팡 등)	공공기관 쇼핑몰 (농사랑, 사회적경제 36.5 등)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판매	따숨몰 (충남 사회적경제 플랫폼)	TV 홈쇼핑
전체		87.6	12.2	17.4	21.3	26.0	12.1	0.3
주 사 업 분 야	농·축산·어·임·광업	84.1	12.7	24.6	15.9	19.0	15.1	1.6
	제조업	86.5	19.1	35.5	24.1	18.4	16.3	—
	도·소매, 유통	93.0	19.5	20.3	20.3	21.9	12.5	—
	요식업	100.0	—	9.1	9.1	4.5	4.5	—
	문화·예술	82.4	12.7	14.7	19.6	32.4	16.7	—
	교육·보육	84.9	12.5	8.6	24.3	38.2	7.2	0.7
	보건·복지·건강	97.1	5.7	—	22.9	31.4	11.4	—
	청소·환경·재활용	96.2	—	2.5	19.0	13.9	1.3	—
	지식서비스업	82.8	10.3	17.2	41.4	58.6	17.2	—
	기타	84.4	6.3	14.6	20.8	29.2	13.5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목표고객 지속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보건·
복지·건강 분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활동 안내 42.9%, 교육·보육업은
없음 38.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6〉 목표고객 지속 유지 위한 활동

(단위 : %)

구분		없음	주기적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만족도 조사	할인 등 이벤트 개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활동안내	기타
전체		32.2	17.9	13.1	27.5	40.5	0.2
주 사 업 분 야	농·축산·어·임·광업	31.7	18.3	12.7	31.0	39.7	0.8
	제조업	19.9	15.6	10.6	46.8	50.4	0.7
	도·소매, 유통	32.8	7.8	13.3	43.0	35.2	—
	요식업	40.9	9.1	13.6	18.2	40.9	—
	문화·예술	22.5	33.3	19.6	16.7	42.2	—
	교육·보육	38.8	23.7	8.6	9.2	36.8	—
	보건·복지·건강	25.7	22.9	20.0	22.9	42.9	—
	청소·환경·재활용	36.7	8.9	10.1	26.6	43.0	—
	지식서비스업	10.3	20.7	10.3	27.6	72.4	—
	기타	53.1	15.6	17.7	18.8	26.0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2021년 매출구조는 전체에서 (B2C)소비자, 조합원, 지역주민, 취약계층 등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주 사업분야별로도 (B2C)소비자, 조합원, 지역주민, 취약계층 등에서 보건·복지·건강 75.0%, 교육·보육업 59.5%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제공은 주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B2B나 B2G보다는 B2C에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17〉 2021년 매출구조

(단위 : %)

구분		(B2B)대·중소기업 등	(B2C)소비자, 조합원, 지역주민, 취약계층 등	(B2G)도 및 시군, 공사,공단, 재단 등
전체		3.3	67.1	29.7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6	80.8	16.6
	제조업	4.8	78.7	16.5
	도·소매, 유통	3.4	76.3	20.2
	요식업	0.5	91.8	7.7
	문화·예술	2.8	63.1	34.1
	교육·보육	1.3	59.5	39.2
	보건·복지·건강	0.6	75.0	24.4
	청소·환경·재활용	3.4	41.4	55.3
	지식서비스업	10.3	32.4	57.2
	기타	4.7	58.9	36.4

3) 사회적가치 창출 현황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구체적으로 해결중인 사회문제는 주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보육 분야는 교육 기회 증진(71.7%), 보건·복지·건강 분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8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8〉 구체적으로 해결중인 사회문제

(단위 : %)

구분		빈곤 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교육 기회 증진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지속가능 소비/ 생산 증진	기타
전체		26.5	26.4	52.9	20.2	7.0	28.6	17.1	30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1.4	73.8	53.2	1.6	4.8	17.5	18.3	23.2
	제조업	29.1	48.2	41.8	7.8	4.3	33.3	26.2	24.1
	도·소매, 유통	30.5	38.3	52.3	4.7	1.6	32.0	32.8	14.8
	요식업	27.3	27.3	72.7	9.1	—	18.2	45.5	9
	문화·예술	22.5	7.8	66.7	38.2	2.9	23.5	8.8	29.4
	교육·보육	23.7	5.3	55.3	71.7	0.7	27.0	3.9	18.5
	보건·복지·건강	51.4	2.9	80.0	11.4	—	40.0	—	25.8
	청소·환경·재활용	35.4	1.3	39.2	—	27.8	32.9	5.1	63.4
	지식서비스업	10.3	6.9	51.7	24.1	—	58.6	27.6	34.2
	기타	20.8	4.2	47.9	4.2	25.0	25.0	17.7	63.4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품 및 서비스 목표 고객은 주 사업분야별로는 보건·복지·건강 분야와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지역주민이 각 68.6%, 57.2%로 나타남

〈표 19〉 제품 및 서비스 목표 고객

(단위 : %)

구분		일반 소비자	조합원	지역주민	취약계층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전체		64.7	31.2	60.8	30.8	4.1	19.8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82.5	28.6	57.1	14.3	1.6	11.1
	제조업	75.2	36.9	62.4	24.1	6.4	14.9
	도·소매, 유통	73.4	35.2	68.8	25.8	1.6	15.6
	요식업	77.3	22.7	68.2	13.6	—	—
	문화·예술	75.5	31.4	61.8	24.5	2.0	21.6
	교육·보육	45.4	29.6	57.2	50.7	2.6	19.7
	보건·복지·건강	34.3	22.9	68.6	74.3	—	8.6
	청소·환경·재활용	53.2	20.3	41.8	31.6	7.6	39.2
	지식서비스업	48.3	24.1	48.3	27.6	20.7	51.7
	기타	56.3	39.6	71.9	32.3	6.3	25.0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창출 가치의 주요 수혜대상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건강 분야와 교육·보육 분야 각 저소득층이 80.0%,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0〉 창출 가치의 주요 수혜대상

(단위 : %)

구분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외국인	탈북자	한부모	일반대중	지역민	농민
전체		14.1	57.7	12.5	21.6	31.8	5.9	3.1	0.3	1.6	33.0	54.5	0.1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9.5	57.9	5.6	5.6	34.1	7.9	2.4	—	—	36.5	57.1	0.8
	제조업	16.3	66.0	5.7	12.8	42.6	9.2	2.1	—	2.8	31.9	52.5	—
	도·소매, 유통	12.5	47.7	5.5	13.3	28.9	6.3	1.6	—	3.1	41.4	60.2	—
	요식업	18.2	54.5	4.5	18.2	27.3	9.1	—	—	4.5	22.7	54.5	—
	문화·예술	13.7	50.0	15.7	31.4	28.4	3.9	3.9	—	2.0	46.1	57.8	—
	교육·보육	14.5	57.2	35.5	52.0	22.4	3.3	2.6	—	0.7	17.1	40.8	—
	보건·복지·건강	28.6	80.0	17.1	20.0	65.7	8.6	2.9	—	2.9	14.3	31.4	—
	청소·환경·재활용	17.7	75.9	5.1	12.7	41.8	2.5	5.1	2.5	1.3	12.7	53.2	—
	지식서비스업	3.4	31.0	10.3	24.1	6.9	10.3	—	—	—	69.0	89.7	—
	기타	12.5	53.1	8.3	16.7	22.9	4.2	7.3	1.0	1.0	44.8	63.5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회공헌 비용은 주 사업분야별로 교육·보육 분야는 292백만원에서 2022년 예상 311백만원으로 19백만원 가량 증가하였고, 보건·복지·건강 분야에선 123백만원에서 2022년 예상 155백만원으로 3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 사회공헌 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예상	
		평균	합계	평균	합계
전체		3	2,933	4	3,478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	337	3	396
	제조업	4	589	6	789
	도·소매, 유통	3	343	3	402
	요식업	1	18	1	17
	문화·예술	2	179	2	206
	교육·보육	2	292	2	311
	보건·복지·건강	4	123	4	155
	청소·환경·재활용	9	714	10	804
	지식서비스업	4	120	5	136
	기타	2	220	3	262

- 회사 수익금 재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교육·보육 분야는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 58.6%, 보건·복지·건강 분야 또한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 57.1%로 나타남

〈표 22〉 회사 수익금 재투자 방식

(단위 : %)

구분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계열조직 지원	지역사회 (사회취약계층)에 직접 환원	해당 기업 경영에 사용	유보 이윤으로 적립	직원 성과급 등 사내복지 사용
전체		15.2	59.3	48.7	30.8	18.7
주 사업분 야	농·축산·어·임·광업	17.5	63.5	34.9	33.3	21.4
	제조업	19.1	65.2	44.0	34.8	24.1
	도·소매, 유통	11.7	56.3	53.1	29.7	16.4
	요식업	9.1	68.2	54.5	31.8	31.8
	문화·예술	14.7	58.8	48.0	20.6	19.6
	교육·보육	10.5	53.9	58.6	27.6	13.2
	보건·복지·건강	14.3	48.6	57.1	45.7	8.6
	청소·환경·재활용	20.3	70.9	38.0	27.8	26.6
	지식서비스업	10.3	58.6	62.1	27.6	17.2
	기타	17.7	51.0	53.1	36.5	12.5

- 회사 조직의 인력·자원 등을 활용해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여활동으로는 주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보육, 보건·복지·건강 분야 모두 해당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의 기부·후원 활동이 각각 55.0%,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3〉 회사 조직의 인력·자원 등을 활용해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여 활동

(단위 : %)

구분		별도의 활동은 없음	구성원들과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기업의 시설 인프라 공유	해당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의 기부·후원	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및 컨설팅 제공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시 인적·물적 지원
전체		22.9	40.4	14.1	57.9	8.0	8.1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3.0	43.7	15.1	57.9	6.3	8.7
	제조업	17.0	37.6	13.5	67.4	6.4	9.2
	도·소매, 유통	21.9	41.4	14.1	59.4	7.0	3.9
	요식업	27.3	50.0	4.5	68.2	—	4.5
	문화·예술	24.5	42.2	17.6	54.9	6.9	8.8
	교육·보육	24.5	39.7	17.2	55.0	9.3	6.6
	보건·복지·건강	22.9	45.7	5.7	68.6	2.9	5.7
	청소·환경·재활용	24.1	43.0	10.1	50.6	13.9	15.2
	지식서비스업	17.2	37.9	13.8	55.2	24.1	3.4
	기타	28.4	32.6	13.7	50.5	7.4	10.5

○ 종사자의 의견 표출할 수 있는 회의, 간담회 진행 정도에서는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36.0%로 나타남

- 보건·복지·건강, 교육·보육 또한 수시로 진행하는 비율이 각 54.3%, 42.8%로 나타남

〈표 24〉 종사자의 의견 표출할 수 있는 회의, 간담회 진행정도

(단위 : %)

구분		수시로	매달 1회~2회	3회 이상	별도의 기회 없음
전체		36.0	32.7	22.2	9.0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5.7	34.1	17.5	12.7
	제조업	34.8	39.7	22.7	2.8
	도·소매, 유통	28.9	32.0	25.0	14.1
	요식업	22.7	45.5	22.7	9.1
	문화·예술	34.3	25.5	30.4	9.8
	교육·보육	42.8	31.6	19.7	5.9
	보건·복지·건강	54.3	17.1	20.0	8.6
	청소·환경·재활용	30.4	44.3	22.8	2.5
	지식서비스업	51.7	27.6	17.2	3.4
	기타	35.4	26.0	20.8	17.7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로자 평균 근무기간은 전체 3년 이상이 29.9%이며, 보건·복지·건강 분야 1년 이상~2년 미만이 28.6%, 교육·보육 분야 23.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 근로자 평균 근무기간

(단위 : %)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		8.7	7.6	19.1	19.1	15.6	29.9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9.5	4.0	15.1	11.9	14.3	45.2
	제조업	2.8	7.1	12.1	16.3	15.6	46.1
	도·소매, 유통	10.2	7.8	14.8	18.0	16.4	32.8
	요식업	13.6	9.1	27.3	18.2	13.6	18.2
	문화·예술	8.8	5.9	28.4	24.5	8.8	23.5
	교육·보육	7.2	13.2	23.0	23.7	14.5	18.4
	보건·복지·건강	11.4	—	22.9	28.6	11.4	25.7
	청소·환경·재활용	7.6	5.1	8.9	19.0	34.2	25.3
	지식서비스업	—	6.9	34.5	44.8	10.3	3.4
	기타	17.7	10.4	25.0	10.4	13.5	22.9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으로 주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연근무제가 없는 경우가 보건·복지·건강 분야 60.0%, 교육·보육 56.6%로 나타남

〈표 26〉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

(단위 : %)

구분		유연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일자리 공유제	집중근무제	한시적 근무제	없음
전체		29.7	9.5	8.4	8.1	23.7	53.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5.4	8.7	10.3	7.9	26.2	54.0
	제조업	40.4	7.1	12.8	11.3	31.2	38.3
	도·소매, 유통	27.3	7.0	6.3	6.3	19.5	60.9
	요식업	31.8	—	13.6	13.6	27.3	50.0
	문화·예술	25.5	14.7	8.8	2.9	20.6	56.9
	교육·보육	27.0	6.6	7.9	7.9	25.7	56.6
	보건·복지·건강	37.1	—	2.9	8.6	17.1	60.0
	청소·환경·재활용	36.7	21.5	8.9	13.9	27.8	39.2
	지식서비스업	31.0	17.2	—	6.9	13.8	62.1
	기타	21.9	9.4	5.2	6.3	16.7	65.6

-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으로 주 사업분야별로 교육·보육업은 마케팅 및 홍보 훈련이 26.3%, 보건·복지·건강 분야는 사회문제교육 훈련이 25.7%로 나타남

〈표 27〉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단위 : %)

구분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 교육	사회 문제 교육	마케 팅 및 홍보	생산 및 품질 관리	인사 및 조직 관리	회계 및 재정 관리	법무 및 법률	노무 관리	사업 계획 서 작성	비즈 니스 모델 발굴	리 더 십	기술 연수
전체		11.2	13.5	33.3	29.8	1.1	3.5	2.0	1.2	0.7	1.0	1.0	1.8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7.9	7.9	45.2	33.3	0.8	0.8	1.6	—	—	—	—	2.4
	제조업	8.5	5.0	35.5	41.1	1.4	4.3	—	1.4	—	—	—	2.8
	도·소매, 유통	10.2	9.4	46.1	24.2	2.3	3.1	3.1	—	—	1.6	—	—
	요식업	18.2	4.5	31.8	40.9	—	4.5	—	—	—	—	—	—
	문화·예술	13.7	19.6	38.2	19.6	1.0	1.0	—	—	—	1.0	2.9	2.9
	교육·보육	19.7	19.7	26.3	23.0	0.7	2.6	0.7	1.3	1.3	0.7	2.6	1.3
	보건·복지·건강	11.4	25.7	17.1	22.9	—	2.9	—	11.4	—	2.9	2.9	2.9
	청소·환경·재활용	6.3	12.7	16.5	45.6	—	5.1	7.6	1.3	1.3	—	1.3	2.5
	지식서비스업	13.8	6.9	24.1	20.7	3.4	13.8	3.4	3.4	3.4	3.4	—	3.4
	기타	6.3	22.9	26.0	27.1	1.0	6.3	4.2	1.0	2.1	3.1	—	—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지역사회 주체들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매년 참여 정도는 전체 2회~5회 미만이 48.7%임

- 주 사업분야별 2회~5회 미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건강분야 42.9%, 교육·보육업 42.1%순임

〈표 28〉 지역사회 주체들(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매년 참여정도

(단위 : %)

구분		참여하지 않음	1회	2회~5회 미만	5회~10회 미만	10회 이상
전체		8.8	28.9	48.7	11.4	2.2
주 사업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5.1	26.2	46.8	8.7	3.2
	제조업	3.5	24.8	51.8	17.7	2.1
	도·소매, 유통	10.9	25.8	55.5	7.0	0.8
	요식업	9.1	40.9	45.5	4.5	-
	문화·예술	8.8	37.3	44.1	7.8	2.0
	교육·보육	7.9	34.9	42.1	12.5	2.6
	보건·복지·건강	5.7	25.7	42.9	22.9	2.9
	청소·환경·재활용	6.3	27.8	50.6	11.4	3.8
	지식서비스업	-	27.6	55.2	13.8	3.4
	기타	12.5	24.0	52.1	10.4	1.0

○ 네트워크 수준은 주 사업분야별로 사회적 경제 관련부서에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건강분야 3.6점, 교육·보육 3.4점으로 나타남

〈표 29〉 네트워크 수준(현재 교류 수준)

(단위 : 점)

구분		사회적 경제 관련부서 (도·시군)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사회적 경제 협의회/ 주 사업분야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기업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	민간기업
전체		3.3	3.2	3.0	2.9	2.7	2.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2	3.0	2.8	2.6	2.5	2.5
	제조업	3.4	3.2	3.2	3.1	2.9	2.7
	도·소매, 유통	3.2	3.1	3.0	2.8	2.6	2.5
	요식업	3.3	3.2	2.8	2.7	2.5	2.4
	문화·예술	3.3	3.2	3.0	3.0	2.8	2.6
	교육·보육	3.4	3.2	3.0	2.9	2.8	2.6
	보건·복지·건강	3.6	3.5	3.3	3.0	2.7	2.7
	청소·환경·재활용	3.5	3.3	3.1	3.1	2.9	2.7
	지식서비스업	3.6	3.5	3.2	2.9	2.9	3.0
	기타	3.3	3.1	2.9	2.7	2.6	2.6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대하는 사항으로 전체에선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이 41.0%이며, 주 사업분야별로 보았을 때도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 부분이 교육·보육 42.8%, 보건·복지·건강 4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0〉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대하는 사항

(단위 : %)

구분		교류 및 친목 활동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	상호거래 등 실질적 거래 관계를 통한 매출 증대	공동 R&D 등 협업 프로젝트 추진	당사자들의 의견 결집을 통한 지자체와 효율적 협력 촉진	기타
전체		13.0	41.0	25.7	6.4	10.4	3.5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16.7	42.9	25.4	4.8	7.1	3.2
	제조업	13.5	41.8	28.4	5.0	8.5	2.8
	도·소매, 유통	7.8	40.6	32.0	5.5	10.9	3.1
	요식업	18.2	54.5	18.2	—	—	9.1
	문화·예술	12.7	43.1	22.5	7.8	8.8	4.9
	교육·보육	13.2	42.8	20.4	6.6	15.8	1.3
	보건·복지·건강	17.1	40.0	11.4	5.7	25.7	—
	청소·환경·재활용	11.4	40.5	32.9	2.5	7.6	5.1
	지식서비스업	3.4	27.6	31.0	27.6	6.9	3.4
	기타	15.6	34.4	25.0	8.3	10.4	6.3

- 당사자 네트워크(시군, 주 사업분야)에 미참여 이유로 교육·보육업은 참여하고 싶으나 가입이 어려워서와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아서가 각각 33.3%로 나타났음

- 또한 보건·복지·건강 분야는 참여해도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항목과 시군 및 주 사업분야 네트워크 정보를 몰라서 항목이 각각 5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 당사자 네트워크(시군, 주 사업분야)에 미참여 이유

(단위 : %)

구분		참여해도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시군 및 주 사업분야 네트워크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고 싶으나 가입이 어려워서	네트워크 활발하지 않아서	네트워크 목적 및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전체		42.5	7.5	15.0	31.3	3.8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36.8	5.3	5.3	47.4	5.3
	제조업	60.0	—	20.0	20.0	—
	도·소매, 유통	57.1	14.3	14.3	14.3	—
	요식업	50.0	—	50.0	—	—
	문화·예술	44.4	11.1	11.1	33.3	—
	교육·보육	25.0		33.3	33.3	8.3
	보건·복지·건강	50.0	50.0	—	—	—
	청소·환경·재활용	80.0	—	—	20.0	—
	지식서비스업	—	—	—	—	—
	기타	25.0	8.3	16.7	41.7	8.3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코로나19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도움 제공 여부로는 전체에서 재정적 기부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 사업 분야별로는 교육·보육 분야가 재정적 기부 34.2%, 보건·복지·건강 분야는 현물 기부(마스크,소독제 등)가 31.4%로 나타남

〈표 32〉 코로나19 관련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도움 제공여부

(단위 : %)

구분		없음	아직 없으나 계획중	외부 공급자와 계약 직원과의 계약의무 지속	업무자문 또는 인력지원	현물기부 (마스크,소 독제등)	재정적 기부
전체		27.9	16.5	12.9	7.6	28.9	36.2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9.4	9.5	18.3	5.6	31.0	38.9
	제조업	18.4	14.9	20.6	5.0	39.7	38.3
	도·소매, 유통	32.0	14.1	12.5	3.9	29.7	39.8
	요식업	22.7	13.6	4.5	13.6	31.8	40.9
	문화·예술	37.3	14.7	12.7	8.8	20.6	29.4
	교육·보육	25.7	25.0	8.6	10.5	18.4	34.2
	보건·복지·건강	17.1	25.7	17.1	14.3	31.4	25.7
	청소·환경·재활용	26.6	7.6	6.3	12.7	39.2	45.6
	지식서비스업	13.8	37.9	17.2	13.8	34.5	24.1
	기타	38.5	17.7	6.3	3.1	22.9	33.3

4)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주 사업분야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보육분야33.6%, 보건·복지·건강분야 28.6%로 나타남

〈표 33〉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시급한 개선사항

(단위 : %)

구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자금 지원 확대	전문지원 기관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확대	사회성과 (사회적 가치) 평가 활성화	기술개발 (R&D) 지원	교육, 컨설팅, 인력양성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전체	27.5	38.7	5.2	15.5	2.3	5.5	5.4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6.2	45.2	6.3	12.7	—	5.6
	제조업	27.7	43.3	2.1	12.1	2.8	9.2
	도·소매, 유통	25.8	39.1	7.8	16.4	—	5.5
	요식업	31.8	45.5	—	9.1	—	9.1
	문화·예술	29.4	38.2	5.9	19.6	2.0	2.0
	교육·보육	33.6	31.6	5.9	16.4	0.7	3.9
	보건·복지·건강	28.6	25.7	5.7	22.9	—	—
	청소·환경·재활용	29.1	43.0	1.3	13.9	2.5	5.1
	지식서비스업	13.8	34.5	3.4	24.1	13.8	6.9
	기타	20.8	35.4	7.3	14.6	8.3	6.3

- 현재 기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사업분야별로는 교육·보육 분야 판로개척 32.9%, 보건·복지·건강분야 인력 확보 및 운용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 현재 기업경영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

구분	자금조달	인력 확보 및 운용	R&D역량 등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경영역량 제고	원재료 조달	업무공간 확보
전체	26.5	21.9	11.5	32.9	4.1	1.4	1.8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7.0	20.6	9.5	37.3	2.4	1.6
	제조업	29.1	15.6	15.6	34.0	2.1	0.7
	도·소매, 유통	25.0	22.7	10.2	35.9	2.3	1.6
	요식업	22.7	13.6	4.5	54.5	—	4.5
	문화·예술	31.4	18.6	12.7	31.4	2.9	2.0
	교육·보육	26.3	24.3	7.2	32.9	5.3	3.9
	보건·복지·건강	17.1	45.7	2.9	20.0	8.6	2.9
	청소·환경·재활용	31.6	17.7	11.4	36.7	2.5	—
	지식서비스업	13.8	24.1	27.6	20.7	10.3	—
	기타	22.9	27.1	15.6	22.9	9.4	1.0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코로나 19 이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보육분야 60.5%, 보건·복지·건강분야 48.6%임

〈표 35〉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성

(단위 : %)

구분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1.2	19.6	15.2	58.7	5.4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4	29.4	14.3	51.6	2.4
	제조업	0.7	12.8	14.9	68.1	3.5
	도·소매, 유통	0.8	19.5	8.6	68.0	3.1
	요식업		22.7	18.2	54.5	4.5
	문화·예술	1.0	14.7	18.6	61.8	3.9
	교육·보육	0.7	13.8	17.8	60.5	7.2
	보건·복지·건강		22.9	17.1	48.6	11.4
	청소·환경·재활용	1.3	35.4	17.7	43.0	2.5
	지식서비스업		6.9	27.6	51.7	13.8
	기타	3.1	19.8	10.4	55.2	11.5

-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 구체적 내용으로 교육·보육, 보건·복지·건강 두 분야 모두 대면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접촉 방식 변화 필요 부분이 각각 50.8%,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6〉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 구체적 내용

(단위 : %)

구분		대면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접촉 방식 변화 필요	조합원들의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소통방식 필요	서비스를 직접 대면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방식의 변화 필요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의 판로 다변화 필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
전체		46.7	36.1	40.2	35.5	34.0	25.1	7.2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44.2	40.7	40.7	33.7	40.7	25.6	2.3
	제조업	47.5	34.4	33.6	33.6	37.7	24.6	8.2
	도·소매, 유통	46.1	43.1	47.1	35.3	31.4	17.6	6.9
	요식업	58.8	41.2	41.2	29.4	17.6	5.9	5.9
	문화·예술	50.0	19.8	46.5	46.5	39.5	24.4	4.7
	교육·보육	50.8	34.6	39.2	32.3	32.3	24.6	5.4
	보건·복지·건강	51.9	48.1	33.3	33.3	22.2	18.5	22.2
	청소·환경·재활용	46.0	38.0	28.0	44.0	28.0	34.0	10.0
	지식서비스업	44.4	37.0	44.4	29.6	33.3	33.3	7.4
	기타	35.1	37.8	44.6	32.4	32.4	35.1	10.8

○ 추가로 확대를 희망하는 판로 영역으로 전체에서 공공구매가 55.7%임

- 주 사업분야로도 공공구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복지·건강분야 71.4%, 교육·보육분야 62.5%임

〈표 37〉 추가로 확대를 희망하는 판로 영역

(단위 : %)

구분		공공구매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대형유통업체(마트 등)
전체		55.7	20.0	8.7	15.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44.4	17.5	6.3	31.7
	제조업	42.6	24.1	6.4	27.0
	도·소매, 유통	50.0	23.4	6.3	20.3
	요식업	54.5	18.2	18.2	9.1
	문화·예술	50.0	25.5	17.6	6.9
	교육·보육	62.5	19.1	9.9	8.6
	보건·복지·건강	71.4	11.4	11.4	5.7
	청소·환경·재활용	72.2	13.9	7.6	6.3
	지식서비스업	69.0	24.1	3.4	3.4
	기타	69.8	15.6	6.3	8.3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현재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인력 분야로 전체에선 제조/생산/서비스 인력이 37.5%이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건강분야도 제조/생산/서비스 인력이 34.3%, 교육·보육분야 34.2%임

〈표 38〉 현재 채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인력 분야

(단위 : %)

구분		제조/생산/서비스 인력	R&D/기술 인력	영업/마케팅 인력	재무관리 인력	기획/전략 인력	인사/조직관리 인력
전체		37.5	8.8	26.8	21.2	4.1	1.6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40.5	7.9	30.2	19.0	2.4	-
	제조업	53.9	9.2	21.3	12.8	2.1	0.7
	도·소매, 유통	31.3	5.5	37.5	22.7	2.3	0.8
	요식업	50.0	-	40.9	9.1	-	-
	문화·예술	29.4	3.9	24.5	37.3	3.9	1.0
	교육·보육	34.2	9.2	28.9	17.1	8.6	2.0
	보건·복지·건강	34.3	5.7	22.9	17.1	8.6	11.4
	청소·환경·재활용	46.8	7.6	15.2	22.8	6.3	1.3
	지식서비스업	-	24.1	34.5	31.0	3.4	6.9
	기타	33.3	17.7	20.8	24.0	2.1	2.1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현재 성장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전체에서 판로개척 부분이 42.6%이며, 주 사업분야별로 교육·보육 분야와 보건·복지·건강 분야 또한 판로개척이 각각 35.5%,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9〉 현재 성장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지원정책

(단위 : %)

구분		자금 (투자 포함)	인력	기술 개발 (R&D)	판로개척	협력 네트워킹 구축	교육, 컨설팅	공간 지원 (사무실 등)	세제 혜택
전체		22.7	14.6	4.8	42.6	9.2	2.6	2.1	1.2
주 사업 분야	농·축산·어·임·광업	20.6	8.7	7.1	56.3	2.4	1.6	0.8	2.4
	제조업	25.5	12.1	2.8	52.5	5.0	1.4	—	0.7
	도·소매, 유통	23.4	10.9	1.6	51.6	9.4	0.8	0.8	1.6
	요식업	27.3	22.7	4.5	40.9	4.5	—	—	—
	문화·예술	22.5	10.8	6.9	43.1	12.7	2.9	—	1.0
	교육·보육	25.7	15.8	3.3	35.5	11.8	5.3	2.6	—
	보건·복지·건강	11.4	25.7	—	28.6	25.7	8.6	—	—
	청소·환경·재활용	21.5	25.3	2.5	29.1	7.6	1.3	12.7	—
	지식서비스업	10.3	10.3	24.1	31.0	20.7	3.4	—	—
	기타	24.0	19.8	7.3	29.2	9.4	3.1	3.1	4.2

2. 전문가 의견수렴

1)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위상

전문가	자 문 의 건
A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42개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됨. 진흥원 자료에서 분류를 보면 사회서비스 영역(교육, 보건, 사회복지, 가사간병, 보육, 사회서비스제공형 등)이 많음. ○ 수적으로 보면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위상은 체감이 어려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의 분야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사회복지 분야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아니기도 하고,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상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반영수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두고 수가를 책정하기 때문임. –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정부 예산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의 요소가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B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분야가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1/3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등 사회서비스 분야가 다수 업종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개인에게 제공되는 특징으로 판로개척, 공공구매 대상이 되지 못함. – 인적용역을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기업이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받지 못함. ○ 사회적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 전문적이며 품질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는 있으나, 사회적경제의 서비스품질 관리가 없고, 근로자들의 고용보장으로 인한 장기근속과 이에 따른 인적 노하우 보유 외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음.
C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가 매우 광범위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당사자 인식도 부족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특수분류체계가 실제 사업현장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 산업통계도 정확하다고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사회서비스 특수분류체계는 돌봄서비스업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에 대한 요양 보호 및 단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가정·거주 시설보호, 아동·노인·장애인·부녀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비의료적 거주시설보호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정의하고 있음 – 돌봄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기업이라고 분류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환자 등에 대해 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0〉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중 돌봄서비스업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2-1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	2-1-7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2-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2	주거보호서비스업
2-1-2	요양병원 운영업	2-2-1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2-1-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2-2-2	아동·청소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1-4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업	2-2-3	한부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1-5	고용알선·인력공급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업	2-2-4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1-6	보육시설 운영업	2-2-9	그 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돌봄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정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을 확산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정부에 의해서 강조 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비판적으로 평가함
 - 2008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을 분류하면서 ‘간병 및 가사서비스, 교육서비스, 보육서비스’로 구분하였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으로 사회서비스가 법제화되었고 ‘돌봄’이 사회서비스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서는 여전히 ‘간병과 가사서비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책을 설명하는 시작과 마지막을 언제나 ‘사회서비스 확대, 활성화, 국민 삶의 질 기대’ 등으로 대국민 선전하였으나 실제 관련 정책은 제조생산업과 유통업, IT나 과학기술 관련 벤처기업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
- 현재 대한민국에서 돌봄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위상, 정부정책에 명분과 실적을 제공하는데 주요했으나, 돌봄서비스업이 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어중간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 경영활동에 있어 애로사항

전문가	자 문 의 견
A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음. – 돌봄서비스 현장직 특성 상 연차, 공휴일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특히 공휴일 수당은 복지부의 수가에 적용이 안되어 있어 지출되는 금액이 늘어남. 노무비 비율이 98% ○ 고용인원이 늘어나면서 수반되는 어려움. – 수가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음. 장애인고용, 주민세 등 – 고용창출로 인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체 근로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 있음. 그로인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애사심을 고취시키기 쉽지 않음.
B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 양성 – 사회서비스분야는 대부분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지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과정이 없음. ○ 열악한 임금구조 기반 정부정책 – 정부의 인력에 대한 지원정책이 신규취업자의 지원, 해마다 증원 위주로 되어있어, 근속 재직자에 대한 지원책 필요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정부의 가격정책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함. 전문성이 뛰어난 인력에 대한 별도의 유인동기를 만들기 어려워 항시적인 인력난 겪고 있음. ○ 조세문제 – 부가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고용에 따른 세금부담이 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특성과 고용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세문제는 심각한 경영 애로 요인 임.
C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낮아 산업화에 장애로 작용 – 돌봄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였으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제도의 영향을 받으며 양성화된 노동과 산업으로 발전하였음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돌봄이 요구되었고, 일자리사업의 결과로 돌봄 노동이 확대되었음 –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나 가족책임 주의가 아니더라도 돌봄의 가치, 돌봄 노동의 생산성에 대해 대단히 낮은 평가를 부여받고 있음 – 또한, 돌봄서비스를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미시적 성과주의 등으로 미완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류를 개선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임 ○ 사회복지서비스로부터 제도화된 돌봄사회서비스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서 현장에서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돌봄노동자)의 지위와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충돌시 사회복지와 노동의 관점에서 정의에 대한 선이 불분명하고, 행정적으로도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 간 충돌이 있음(*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확대한 종사자의 징계 수준과 노동관청의 처분수위에 큰 차이 존재

3) 정부의 정책 변화 환경

전문가	자 문 의 건
A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의 체감은 없음.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의료사협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것도 크게 반영되지 않음.
B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가구, 청년, 맞벌이 가구 대상 신규서비스 개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 100세 시대 일자라·건강·돌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중심 지역내 다양한 의료·돌봄·기관을 연계하여 커뮤니티케어 실현 등 →정부의 방향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 필요함.
C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정부대응정책 방향은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및 보편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존의 사회서비스 확장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민간의 다양한 참여 확대’라는 표현에서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변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그간 5차례 진행된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의 논의 주제나 내용에서도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활성화(정부합동발표, 2018)’와 다른 행보로 보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정부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참석자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 투자금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에 대한 방향에 따라 수행 주체가 어떻게 선정될지에 따라 정부의 의지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전문가	자 문 의 건
A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현장 업무는 비슷하지만 부서에 따라 처우가 다름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 및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일자리창출을 하는 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 분야의 세제정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
B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융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점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IT 융복합, 플랫폼 개발에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경제가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 - 대인서비스 기반 사회적경제가 시설서비스 제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재원 지원(사회적금융 등) - 업종, 지역간 컨소시엄 촉진사업을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로 지원, -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통합화를 통해 규모화 증진 등 ○ 조세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조세 지원.
C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정의 및 분류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를 반영하는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정의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너무 포괄적이면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한)을 사회적기업 새유형으로 분류 -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측정(SVI) 지표 개선 ○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시설확충 방안의 혁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임차료 등 운영비와 신규서비스 개발비 등 운영, 사업비 자금조달방안 다양화 -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돌봄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임금채권 규제방안 마련(= 임금채권에 대한 보증기금 대체 등)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확충방안 다각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시설확충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축 후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특례를 위한 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제외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추가 -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하는 용역의 범위(시행령 제35조)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개정 - 주목적사업에 대한 취득세, 고용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등 세부적인 조세감면 등을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03 정책 제언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 개선 필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75%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
 - 75%에 포함되지 않는 공휴일수당,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인건비 관련 비용이 수가 대비 97% 이상 사용되어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음

사업비 중 종사자 인건비 지출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지급된 급여비용으로 활동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급여비용 중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등 포함)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건비 사용 내역〉

연도	수가	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사회보험사업자	퇴직금	총액	수가비율
2022	14,800	9,160	1,832	528	562	1,368	1,007	14,465	97.68%
2021	14,020	8,720	1,744	501	535	1,075	958	13,533	96.53%
2020	13,500	8,590	1,718	494	494	1,044	900	13,240	98.08%

※ 공휴일수당 : 휴일 개수에 따라 달라짐

※ 사회보험 사업자 부담 :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짐

2. 돌봄서비스 수가 동일적용 검토 필요

1) 유사돌봄 서비스 동일수준의 수가 적용 및 합리적 인건비 기준 마련

- 일자리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종일제 근무방식을 도입, 한 명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종사자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음
 - 방문요양의 86.6%안에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음

〈사업별 수가 및 인건비 비율〉

사업명	2021년	2022년	지침상 인건비기준	실제 인건비비율
방문요양	16,056	16,800	86.6%	86. 6%
장애인활동지원	14,020	14,800	75%	97.68%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4,800	15,400	75%	92.0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14,800	15,400	75%	93.69%

〈사업별 지원금 및 수당 지급 비교〉

	돌봄인력 한시지원금	사회복지사 가산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중증 가산	처우개선비	직무교육 수당
방문요양	20만원	○	○	○	15~20만원 (지역차이)	○
장애인활동지원	×	×	×	○	×	×
가사간병	×	×	×	×	×	×
산모신생아	×	×	×	×	×	×

3. 종합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1) 가사간병서비스

- 가사간병은 최초에 복권기금으로 출발하여 여타 사회서비스에 해당 되지 않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 되어 왔음
- 기관별 가사간병 수급자수는 전국 평균 20명 이하로 추정됨. 지역별로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관은 1~2개소가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복지 사각지대의 수요는 있으나 이 수요로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국비사업으로 재설계 검토 필요
- 가사간병의 신청요건 완화도 필요함. 현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기준 상향조정, 가사간병의 대상 및 서비스 영역 확대 필요(긴급돌봄, 동행지원, 영양돌봄 등), 제공시간 확대(현 최대 27시간)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 필요

① 2022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율
단태아 첫째아	A-통합-①형	연장 15일	1,872,000	744,000	39.74%
	A-라-①형	연장 15일	1,872,000	968,000	51.71%
단태아 둘째아	A-통합-②형	연장 20일	2,496,000	954,000	38.22%
	A-라-②형	연장 20일	2,496,000	1,260,000	50.48%
쌍생아 인력1명	B-통합-①형	연장 20일	3,168,000	1,066,000	33.64%
	B-라-①형	연장 20일	3,168,000	1,485,000	46.88%

② 쌍둥이 2인 시간조정 및 큰아이돌봄 수당 신설

- 쌍생아는 1인 제공과 2인 제공으로 나누어져 수가와 시간이 다름. 쌍생아 1인은 1일 8시간 근무이며 쌍생아 2인 제공은 7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음. 쌍생아임에도 7시간 근무로 단태아 1인 제공시보다 오히려 급여가 적어 불합리하여 영리제공기관은 서비스기피 현상이 심각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로 남편과 큰아이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진행하지 않음. 남편은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므로 별도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큰아이 서비스는 필요한 영역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서는 추가구매를 통해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금액과 서비스 영역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큰아이 식사준비, 큰아이 방청소, 큰아이 세탁물 관리,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등임.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구매를 지급하지 않고 추가서비스를 요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임
- 방문요양 중증수급자 가산처럼 큰아이 1명, 2명, 3명에 따라 추가금액을 정상 서비스 체계 안에 포함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관리사가 안심하고 서비스할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

3) 맞춤형돌봄서비스 : 중복지원 없는 통합돌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

- 노인서비스가 맞춤형돌봄서비스로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지자체 사업)은 보조금으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고, 종사자 처우에도 복지관 기존직원과의 형평성도 야기되고 있음
-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이용자 확대를 통해서 예방사업 강화하고, 제공인력 교육, 실적취합, 자원연계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필요

4.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정비 필요

1)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

- 사회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로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법인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보장으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법 제 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

②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보장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시설을 확충
- 노동집약적인 사회복지시설(요양생활시설, 재가요양시설, 보육시설 등)과 기술집약적인 사회서비스시설(의료기관, 교육훈련시설 등)의 설립과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시행하고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 특히 지역 기피시설로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을 시행사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설립 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고, 사협적협동조합은 1차 위탁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2)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지방세 면세 적용

-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2022년 12월 31까지 면제)
- 사회서비스 사업 중 일자리 창출 영역은 사회복지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필요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2. 31., 2016. 12. 27., 2020. 1. 15.>

3) 의료사협으로 조직변경 규제 완화: 주사업 인정 범위 확대 필요

- 비영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료사협으로 조직변경할 경우, 주사업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필요
- 예) 사단법인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부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신청하였으나 지역복지서비스의 주사업이 노인사업이 아닌 산모 돌봄이어서 불가능한 상황

4) 지역자산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금 활성화 방안

- 돌봄서비스 10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들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위해 규모화,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규모화, 다변화를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자금확보가 어려움
- 행안부 지역자산화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설투자를 위한 기금이 마련된다면 규모화가 유용할 것임
-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설투자기금은 대출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낮아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가지 않을 것임
 - 예)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중 6개 기업이 시설투자로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설치하였고, 3개 기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추가로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음

- 김영중(2017),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담론적 작용,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1호, p175-197
- 김옥희외(2015),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24권 pp121-155
- 노대명외(2017),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동세(2014), 돌봄사회서비스기업에 대한 고성과작업장 운영전략 적용 연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이홍택(2021), ‘2021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 이인재(2017),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서비스실천 변화, 사회과학논총 제20집1호, pp25-48
- 이준영외(2010),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기업, 사회보장연구 제26권3호 pp257-281
- 이로운넷(2022.10.4.), 사회적경제 정책 보수정부에서 더욱 활성화.. 사회적경제만한 파트너 없어”